

# 地方化時代를 대비하는 釜山産業大學校\*

崔 敬 桓  
(本協議會 研究員)

## 釜山産業大의 略史

부산산업대는 고 김길창 목사가 사랑과 봉사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와 민족에 헌신하고자 하는 교육자를 양성하기 위해 1953년 재단법인 경남대학교육원 설립 인가를 받아 1955년에 설립, 개교한 경남사범대속을 母體로 한다.

경남사범대속은 1963년에 한성여자실업초급대학으로 개편 인가되어 1978년까지 3,400여 명의 여성 中堅指導者를 지역 사회에 배출하였고, 재단법인 경남대학교육원은 학교법인 한성학원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8년 10월 校名 변경과 함께 부산산업대학으로 승격 개편되어, '79년 3월 5개 學部 20개 학과에 530명이 입학함으로써 4년제 남녀 共學大學으로 발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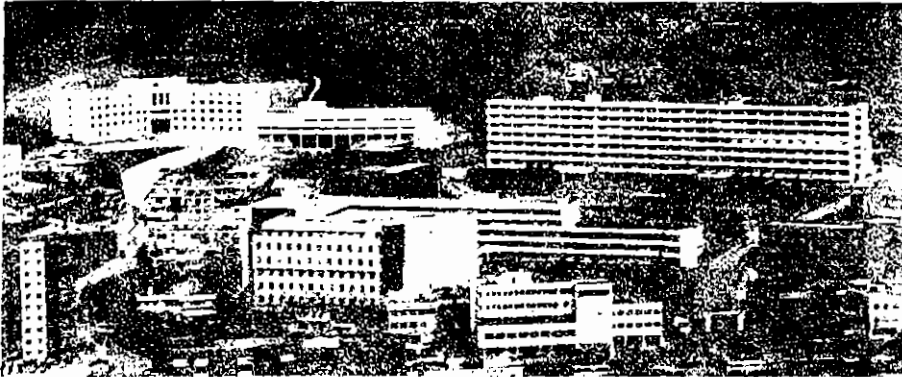
부산산업대학으로의 출발과 동시에 綜合大學 建設委員會가 발족되어 5개년 발전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종합대학교로 발전하기 위한 시설 확장과 대학교육의 질적, 양적 확충으로 '82학년도에는 6개 학부 38개 학과와 2부로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83년 9월에는 종합대학교로 승격 인가되어 5개 단과대학, 대학원, 무역대학원의 編制를 갖추었다. '87학년도 현재 문과대학, 법정대학, 상경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예술대학의 6개 단과대학 49개 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16개 학과와 박사과정 6개 학과, 전문대학원인 무역대학원과 산업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 綜合大學 昇格 前後의 急成長

“고도의 科學技術과 專門知識의 터득, 그리고 풍요한 인간 교육에 치중하여 ‘義와 참’으로 다져진 이상적인 人間像을 정립시켜 국가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인재를 양성 배출한다”는 建學理念을 구현하고자 하는 부산산업대는 불과 9년 동안에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해왔다. '79년 4년제 대학 승격으로부터 '87년 현재까지의 大學 發展史는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79년부터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83년까지라면, 제2기는 종합대학 승격 이후 '87년 현재까지라고 할 수 있다. 제1기는 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외형적인

\* 지난 호까지는 회원대학으로부터 원고를 받아 게재하였으나, 이번 호부터는 본지 편집진에서 직접 회원대학을 방문 취재하여 기사화하였음.



◀ 釜山産業大 전경  
뒤에 보이는 산이  
개발 예정인 황령  
산 기슭

〈표 1〉 1983~'87년 5년간의 양적 성장

구분	연도	'83년	'87년 현재
학 과 수		6개 학부 38개 학과, 무역대학원 1개 학과	6개 단과대학 49개 학과, 대학원 16개 학과, 무역대학원 2개 학과, 산업대학원 6개 학과
학 생 수	증정 원 수	6,540명	7,868명
	재학생수	5,182명	8,460명
교 수 수		122명	220명
사 무 직 원 수 (고용직 미포함)		44명	96명
교 사 면 적 (동 면 적)		42,807m <sup>2</sup> (6동)	65,354m <sup>2</sup> (10동)
교 지 면 적		888,154m <sup>2</sup>	917,556m <sup>2</sup>

양적 성장에 치중한 시기라면, 제 2기는 지속적인 양적 성장과 아울러 그에 따른 質的 內實化를 기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된 '79년의 11개 학과에서, '79년 9월 9개 학과, '80년 12개 학과, 81년 3개 학과와 무역대학원 1개 학과, '82년에는 3개 학과가 각각 신설되어,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83년에는 모두 6개 學部 3개 학과와 貿易大學院 1개 학과로 늘어났다. 즉 5년만에 대학원 1개 학과를 포함하여 모두 28개 학과가 신설되는 등 괄목할 만한 量的 成長을 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중앙도서관, 시청각교육원, 예술관, 중앙정밀기기실이 준공되었다.

'83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이후 87년 현재까지 양적 성장은 계속되어 왔다. 위의 〈표 1〉에서처럼 '83년 당시와 '87년 현재의 현황을 대비해 보면 부산산업대의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

은 명백하게 드러난다.

학과수는 '83년 대학원 학과를 포함하여 39개 학과에서 '87년 현재 73개 학과로 약 1.8배 증가하였다. 재학생수는 '83년 5,182명에서 '87년 8,460명으로 1.6배 증가하였으며, 교수수는 '83년 122명에서 '87년 220명으로 1.8배, 고용직을 뺀 정규 사무직원 수는 '83년 44명에서 '87년 96명으로 2.1배 증가하였다. 교수 수와 사무직원 수는 아직 적정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부산산업대에서는 매년 교수를 20여 명, 그리고 사무직원을 10여 명씩 신규 채용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내실화와 아울러 行政支援體制를 더욱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 학과와 학생수의 급증으로 말미암아 부족하게 된 교수 연구실, 강의실, 그리고 學生福利 施設用으로 법정대학관, 상경대학관, 학생회관 등을 신축하였다. 校舎의 新·増築을 위해 부산산업대에서는 대연동 소재 학교 부지를 더욱 넓히고 있는데, '83년에는 교지 면적이 888,154m<sup>2</sup>에서 '87년 현재 917,556m<sup>2</sup>로 늘어났다. 부산산업대의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협소한 기존 캠퍼스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미개발 상태인 理科大學館 뒤의 황령산 기슭에 있는 학교 부지를 개간하여 캠퍼스 확장을 위한 신축 부지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 質的 內實의 追求와 成果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부산산업대는 지난 9

년 동안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룩하면서 이와 함께 교육의 질적 내실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왔다. 이 글에서는 지면 관계상 질적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다 소개하지 못하고, 다른 대학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없는 면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 1) 優秀한 教育·研究施設 確保

부산산업대의 대표적인 교육·연구 시설로는 시청각교육원, 예술관, 중앙정밀기기실이 있다. 시청각교육원이 어문·사회계열 학과를 위한 교육시설이라면, 예술관은 예능계열 학과를 위한 교육시설, 그리고 중앙정밀기기실은 이·공계열 학과를 위한 교육·연구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高價의 최신 器資材를 구비하고 있는 이들 교육·연구 시설은 교수·학습활동의 效率性을 증대하고 있어서 부산산업대의 질적 내실화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 (1) 視聽覺教育院

'82년 9월에 개원한 시청각교육원은 총 건평 2,376 평의 5층 건물로, 총 건축비 16억 6천여 만원, 시설비 총액 3억 7천여 만원이 투입되었다.

부산산업대의 시청각교육원은 일반 대학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聽取型 시청각 교육시설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녹음기, Monitor TV, 학습반응 측정기, 슬라이드, 영화, VTR, Video Projector 등에 이르기까지 多機能의 시설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다.

Main Control Room을 포함한 제1, 제2 Language Laboratory, Full Language Laboratory, 6개 국어 동시 통역이 가능한 우수 시설의 국제 회의장, 100" Video Projector, 강연, 무용, 연극, 음악 감상 등 多目的 기능을 가진 종합 시청각 교육실, audio tape를 이용하여 외국어 습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언어 학습실, video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TV 교실이 설치되어 명실공히 부산 최대 규모의 시청각교육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 (2) 中央精密機器室

'83년 6월에 개원한 중앙정밀기기실은 실험대, 기구장 등 부대 시설물을 제외한 순수 실험

〈표 2〉 중앙정밀기기실의 각실 및 중요 장비

실명	중요장비
레이저 및 음향실	Dye Laser Spectroscope, 무향실 및 음향분석기 등
전자현미경실	투과식 전자현미경 및 다목적 현미경
암실	Microtom 및 사진 현상 시설 등
X-선실	X-ray 회절장치, 일시차분석기 및 전기 분석기 등
프라즈마실	섬광, 발광, 분광, 광도계 등
분리분석실	가스, 액체, 박층, 크로마토그래프 등
분광실	적외선, 가시자외선, 형광, 분광, 광도계 및 색차계 등
관리실	만능 재료 시험기, 고속 원심분리기, 냉동 건조기, 각종 향온 조 등 시료처리기

실 공사비로 1억 3천여 만원이 투입되었으며, 精密機器 41종을 도입하는데 7억 8천여 만원이 투입되었다. 실험실 면적은 116.6 평(384.75m<sup>2</sup>)이다.

중앙정밀기기실에 설치된 대부분의 기기들은 自動電算能力을 갖춘 고도의 정밀기기이다. 이들 기기의 성능을 유지하고 수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기기실 내부는 단열, 방음, 방습 장치를 완벽히 하여 외부로부터의 먼지나 海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自動空氣調和器를 설치하여 실내 온도 및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도록 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실험·실습 및 연구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앙정밀기기실에 설치된 중요 장비는 〈표 2〉와 같다.

#### (3) 藝術館 및 콘서트·홀

'83년 준공, 개관된 예술관 및 콘서트·홀은 총 건평 3,500 평으로 건축비 26억 4천만원, 시설비 6억 1천여 만원이 투입되었다.

부산산업대 예술관은 완벽한 音響施設, 각종 고성능 조명 장치를 포함한 무대 시설, 비디오 시설 등과 600석의 객석을 갖춘 콘서트·홀 및 예술대학의 분야별 敎科課程에서 필요로 하는 종합적이며 과학적인 체계의 實技·實習室을 갖춘

으로써 명실상부한 藝術教育의 殿堂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관은 음악렛슨실 25실, 회화실기실 10실, 응용미술 실기실 7실, 공예 실습실 6실, 무용실 3실, 교수 연구실 35실, 오케스트라 연습실 1실, 현대 미술관과 음악 도서관, 그리고 기타 부대 시설로 되어 있다.

이는 예술 창조의 기본이 되는 技와 藝를 닦기 위한 이론과 실기의 조화있는 교육을 위한 바탕으로서, 학생들의 창작 의욕을 진작시켜, 유능한 예술인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문화의 육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 2) 엄격한 教授公採制와 海外研修

교육의 질적 내실은 무엇보다도 教授·學習活動의 질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수·학습 활동의 질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 수준의 전임교수 수를 확보해야 한다. 전임교수 확보율이라는 量的 指標가 바로 교수·학습 활동의 질적 내실을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질적 秀越性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부산산업대의 교수수는 '87년 현재 220명으로 4년전인 '83년의 122명에 비해 약 1.8배 증가하였다. '83년 교수 1인당 학생수의 비율이 1:42.4인데 비하여, '87년 현재 1:38.4이다. 아직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4년만에 교수수가 1.8배 증가하였다는 것은 교육의 질적 내실화를 위한 부산산업대의 진지한 노력을 말해 주는 것이다. 앞으로도 매년 20여 명의 전임 교수를 신규 채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전임교수 확보율은 점차적으로 적정 수준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산업대는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 경남 지역의 重鎮教授를 초빙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教授公採制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외의 名門大學에 추천 의뢰를 하여, 우수한 실력을 갖춘 박사학위 소지자를 공채하고 있다. 이미 사람을 내정해 놓고 신문 지상에 교수 초빙 광고를 내어 형식적으로 서류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총장 직속하에 해당 학과장을 포함한 副處長級 이상의 보직교수로 教授公採審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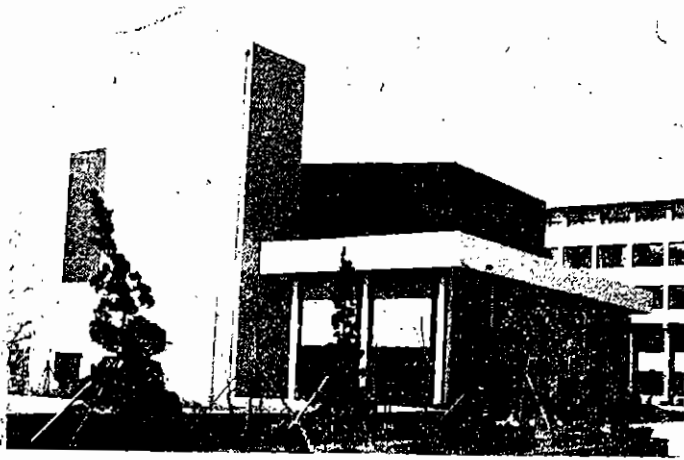
委員會를 구성하여, 교수요원(후보자의 연구 실적물을 엄밀 심사 끝에 결정한다. 이밖에 산업공학, 물리학 등의 학과에서 요청하는 특수분야의 전공자의 경우는 국내·외 관련 학회·기관이나 KAIST의 추천을 받아 초빙한다.

또한 부산산업대는 교수의 자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 연수로는 대부분 박사학위 미소지자 교수들에게 국내 대학의 博士學位課程을 이수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인데, 이들의 의욕을 진작시키기 위해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學位手傭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해외 연수로는 문교부나 해외 관련 기관의 지원 또는 개인 부담으로 하는 것 이외에, 해마다 학교에서 방학을 이용해 15~30일간 유럽에 5명, 동남아에 8명의 교수를 보내 연구 자료를 조사, 수집케 하고 있다. 물론 비용은 학교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밖에 장기 연수로 자매 대학인 미국 조지아대학에 1년 동안 체재하면서 연구 및 자료 수집을 하도록 하는 客員教授制를 실시하고 있다.

## 3) 獨自的인 獎學基金 造成

대학에서 재학생에 지급하는 장학금은 크게 校內 장학금과 校外 장학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교내 장학금은 대부분 校費, 즉 학생들의 납입금이나 재단 出資金에서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부산산업대에서는 교비 이외에 다른 대학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방법으로 독자적인 獎學基金을 조성하고 있다. 바자회와 教授作品展 그리고 소비조합의 운영을 통한 장학기금 조성이 바로 그것이다.

'84년 전체 교직원들이 참가한 바자회를 시초로, '86년에는 미술·공예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교수 작품전을 개최하여 그 판매 대금으로 '87년 현재 1억여 원의 장학 기금을 확보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2년에 한번씩 장학 기금 조성을 위한 교수 작품전을 개최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87년부터 학생들이 참여하는 消費組合를 구성하여 다과, 음료, 문구류, 일상용품 등을 팔아서 그 이익금을 전부 학생 복지 기금과 장학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의 면학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에서 형성된



▲ 예술관 및 콘서트·홀

학교 재단, 교직원, 학생들의 일체감은 곧 부산산업대의 밝은 내일을 암시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 釜山地域 文化의 繼承·暢達

부산산업대는 附設研究所의 지역사회에 대한 활발한 연구·봉사활동과 아울러 학교 시설을 개방함으로써 부산지역 문화를 계승·창달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완벽한 음향시설, 각종 고성능 조명 장치를 포함한 무대 시설, 비디오 시설 등과 600 석을 갖춘 콘서트·홀을 개방하여, '86 년도에는 부산심포니에타 연주회, 불란서 인형극, 고베첸베오케스트라 연주회 등을 포함 총 96 회의 각종 藝術公演이 이 콘서트·홀의 무대에서 펼쳐졌다. 또 부설 外國語研究院은 미국 조지아주립대학교 American Language Program 과 공동으로 주관하여 최신 언어 실험실과 시청각교육 기자재를 통해 부산 시민을 위한 영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외국의 문화 이해나 외국어에 대한 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문화에 기여하고 있다.

기자는 지역 사회에 대한 활발한 연구·봉사활동이 부산산업대의 장점이자 앞으로 도래할 地方化時代를 대비하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면 관계상 향토문화 연구소와 현대미술 연구소의 활동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 1) 鄉土文化研究所의 鄉土調查事業

향토문화연구소는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향토의 傳統 土着文化를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82년 3월에 설립된 연구 기관이다. 한민족의 유구한 문화 전통의 기반이 鄉土를 중심으로 형성 유지되어 왔다는 점에 입각하여 향토를 근거로 편찬된 각 지역의 地誌와 書院, 鄉校 등의 교육기관, 齋室, 樓亭, 동족집단 등의 향토 관련 문헌 전적과 金石文 등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걸친 향토 자료의 발굴, 정리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각 지방의 민속과 생활

양식의 다양한 면모를 점검하여 토착문화의 생성·변화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수립하는 데 진력하고 있다.

향토문화연구소는 부산시의 금석문을 조사, 정리하는 것을 첫 사업으로 시작하여, '84년 「釜山市金石文」을 鄉土資料叢書의 제 1집으로 간행하였다. 제 2차 사업으로 '84년 6월부터 鄉校記文을 비롯한 典籍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부산, 경남의 29개 향교를 대상으로 '85년 조사를 완료하였다. 掲載된 기문을 사진으로 촬영 현상하여 판독하고 원고로 옮기는 한편, 국역작업을 병행하여 '86년 3월에 「釜山慶南鄉校記文」을 鄉土資料叢書 제 2집으로 간행하였다.

향토문화연구소의 이와 같은 활발한 향토 조사 연구는 부산 산업대의 질적 내실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 될 뿐 아니라, 부산·경남 지역의 鄉村 士大夫 文化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주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現代美術研究所의 研究課程 운영

부산산업대 부설 현대미술연구소는 '85년부터 社會教育의 일환으로 연구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연구 과정은 정규 미술대학 출신으로 졸업 후 개인 사정이나 家事 등의 이유로 현재 작품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또는 정규 미술대학 출신은 아니지만, 현재 작품 활동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그림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性別 제한은 없지만, 대부

분이 40 대 주부들이다.

教科課程은 실기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데, 油畫를 중점적으로 하고 현대 미술과 연관된 판화, 도자기, 회화적인 염색을 결들이고 있다. 이밖에 일주일에 한 시간씩 회화론과 현대 미술론에 관한 이론 강의도 병행하고 있다. 수료 과정은 6 개월을 1 개 단위로 하고 있으나, 연구생 대부분이 1년 과정, 또는 2년 과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87년 현재까지 총 18명의 연구생이 등록하였으며, 이들 중 8명이 현재 부산에서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85년에는 이들 연구생들의 과제전이 팜플렛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86년에는 제1회 현대미술연구소 작품전이 부산산업대 예술관 전시설에서 개최되었다.

현대미술연구소의 연구 과정은 부산 유일의 미술분야 재교육 전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 작가를 육성할 뿐만 아니라, 작품 모델을 구하거나 그밖의 작품 활동하기에 여건이 충분치 않은 부산 지역 畫壇에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다. 현재는 교수수의 부족으로 부산 시민들의 기초 과정 개설 요청에 응하고 있지 못하지만, 교수가 충원되는 대로 문호를 더욱 개방할 계획이라 한다.

### 地方 名門私學으로의 跳躍

부산산업대는 1989년을 목표로 9개 단과대학

과 대학원, 3개 전문대학원으로 발전함으로써 명문 사학으로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수한 교수와 학생의 유치에 최선을 다하여, 12,000여 명의 학생과 380여 명의 교수를 확보함과 아울러 勉學風土의 조성을 위해 재반 교육 여건과 후생복지 시설의 확충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개간중인 황령산 소재 학교 부지에 현대식 캠퍼스가 조성되고, 현재 진행중인 事務行政 電算化 작업이 완료되어 行政支援體制가 강화되면 학교 발전에 또 하나의 획이 그어질 것이다.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한 이후 현재까지 9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괄목할 만한 질적, 양적 성장을 거듭해 온 부산산업대는 머지 않아 지방 명문 사학으로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기자가 부산산업대의 강인한 발전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재단, 교직원, 학생들간의 일체감 형성을 통해서 그리고 우수한 교육, 연구 시설 등을 둘러 보면서 절실히 체감할 수 있었다.

이번 부산산업대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글을 가름하면서 새삼 절실하게 느낀 바는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의 의지나 노력뿐 아니라, 대학의 自律性 伸張과 財政支援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정책 지원, 그리고 지역 사회의 발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학, 정부, 지역 사회의 노력이 三位一體될 때에 대학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